

18-304 to 18-312: 우리의 자세

 hdhstudy.com/1967/18-304-to-18-312-%ec%9a%b0%eb%a6%ac%ec%9d%98-%ec%9e%90%ec%84%b8/

우리의 자세

1967.08.10 (목), 한국 전본부교회

18-304

우리의 자세

[말씀 요지]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여 보면 우리는 물리고 쫓김받던 무리요, 서러운 눈물을 남몰래 삼켜가면서 그날 그날을 이어 나왔던 무리입니다.

18-304

반성해야 할 한국의 청년식구들

여러분들 중에는 환희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해방을 맞이하려는 마음마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망정 오늘에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삶과 슬픔의 행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어떠한 인연을 중시하고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선생님이 떠나면서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또 이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남이 모르는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내가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높게 받들어야 할 하나님이요, 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뼈가 굵어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이 붙어서 인간이 된 이 몸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여러분이 갖추었던 지난날의 자세마저 흐트러진 채 슬픔에 잠겨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방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책임해야 할 분야는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정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도 신문을 통해서 한국의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휴전선을 중시한 일선과 후방 곳곳에 무장간첩이 빈번히 출몰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세계를 대신하여 세워 주신 세계의 본부인 것입니다. 이 인연으로서 본부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이곳 본부에서는 어떤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입교한지도 며칠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하늘같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부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에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지금 같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미가와(神川)라고 하는 곳에 우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에 걸쳐서 통일교회의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폐품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본부를 그리워하고, 본부와 인연된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들은 생활환경에 있어서는 우리들보다도 부유한 입장에서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어떠한 입장으로 활동을 하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혈기왕성한 기백과 정력을 소모할 길이 없던 차에 통일교회의 움직임을 보니, 한번 가담하여 일해 보고 싶다는 강한 의욕이 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취미적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들을 살펴보면 신앙의 연조도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과 같이 활동을 전개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도수가 차면, 그들은 그러한 생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현재의 한국 청년 식구들과 일본의 청년 식구들을 비교해 본다면, 한국의 청년 식구들이 틀림 없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싸워 왔고, 또 연단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지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청년 식구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지만, 하나님은 더욱 큰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찾고 계시기에, 같은 기간의 활동 실적이 세계적인 실적으로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곳을 발전시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가 합니다.

18-306

새로운 결의로 재출발해야 할 때

이런 내용을 생각하여 볼 때,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고생을 했고, 또 싸워 나왔다고 할지라도, 본부의 이 귀한 위신이 명목상의 위신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내용상으로 위신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귀국했으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강조해야 할 것이냐?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자세를 갖겠다고 결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한국을 떠날 때, 여러분들 중에서 120명을 선택하여 43조의 삼위기대를 조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지순회 기도와 특별 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일심단결해서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1957년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새로운 역사적인 터전이 마련되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임하지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사회적인 환경과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놓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한 주기적인 기간으로서 7년 내지 8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왔으므로,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의를 하고 단결하여 세계 앞에 본부의 위신과 본부 식구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금지를 잃지 않고 나서게 될 때, 외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경을 휩쓸고 넘어갈 수 있는 내적인 터전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나오던 활동을 그대로 계속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돌아왔으니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되겠습니다.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 본부교회에서 일어나, 그것이 하나의 터전으로 마련되어서 세계적인 위치에 놓여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내적인 자세와 외적인 자세를 정비해야만 되겠습니다. 즉 자신과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까지 뜻이 지향하고 나왔던 방향과, 현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를 명확히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7년의 고비를 넘고 새로운 8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친 몸이 더욱 더 단결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적인 가치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동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꾸며 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비참한 민족입니다. 쫓기고 물림받던 이 민족의 설 자리가 비록 어느 한 모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를 후려치게 될 때에, 이 민족의 역사가 내 밀에 깔려 들어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재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과거의 낡은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딛고 넘어설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모습들이 될 것을 결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에 속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단체적인 교회 생활보다도 개인 생활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같이 먹고, 없으면 같이 굶는 단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자신을 연마해서 공동적인 활동목표를 향하여 행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여러분들을 비교할 때, 한국은 지금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 활동과 개인 활동이 유대가 되어 있지 않고 떨어진 입장에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고립되고 마는 것입니다.

18-308

‘신앙의 조국’의 위신을 세우라

하나님의 사정을 중시하고 축복가정들을 볼 때에, 그 가정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정들이어야만 합니다. 그 가정들은 사탄세계와의 최전선에서 축복가정으로서 승리의 터전을 확립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편에 속하는 사람들을 번식시킬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써, 이번의 전체 활동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주지 않고서는 전체적인 승리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고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성령 역사를 하면 탕감이 많았고,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잘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는 어려운 시험의 고개가 있어서 그 고개를 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월까지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놓고 새로운 결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심정을 부활시켜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이 정비된 모습으로써 제2차로 통일교회에 들어왔다는 기분을 가지고, 이 민족을 대표해서 제2차 7년노정을 향하여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제2차 7년노정! 우리들은 모든 어려운 일들을 물리치고 출발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구장이 관할하던 인사발령도 선생님이 직접 관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통일교회를 지양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민족을 위해, 또한 조국의 새로운 광복의 사명을 지닌 본부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식구들의 축복문제도 생각하고 갔었지만, 그들은 축복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년 내지 3년만 더 있다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개인 문제보다도 일본을 위해서 참되게 살아 보지 못하고, 참되게 활동해 보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을 미루어 보더라도, 여러분의 새로운 자세가 얼마만큼 긴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때인가를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와 소원을 걸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를 둘로 완전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1교회 제 2교회 제3교회를 전부 재편성하여, 둘로 분립시키려고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가망성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움직이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한 자리에서다 썩어 놓으면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잘 되면 다시 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싸움은 한꺼번에 전부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선두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선두의

싸움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가 가인이요, 지상이 아벨이라 하게 되면 영계의 영인들은 지상에 재림하여 협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310

통일교인은 공동 운명체

선생님이 일본 대판에 갔을 때, 그곳의 장년 식구들이 '일본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학교나 가정을 저버리고 헌신을 해서 교회의 명령에 군대의 병정들처럼 움직이는데, 우리들과 같이 가정을 가진 장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또 책임자가 새파란 젊은 사람들인데, 장년들이 그들 앞에 가서 순종하며 명령을 받게 되니, 하는 일이 전부 다 일방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싸워도 하나는 싸워야 될 게 아닙니까? 장년이 싸우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싸우는 그 싸움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줄을 왜 모릅니까? 선두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아벨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상과 같고,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영계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영계의 협조를 받아서 부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년 식구들의 협조로 말미암아서 젊은 사람들이 복귀될 때에 여러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아 복귀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은 식구일수록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현재 선두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물심양면으로 일선에 나선 사람들을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뜻 앞에 서서 책임을 다하게 될 때, 그 공적으로 그들을 따라가서 횡적인 면에서 실체부활의 혜택을 받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되었다는 통일교회의 장년식구들은 그러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야지'라고 말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선두에 나서서 싸우면, 그들의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는 이런 일체적인 관계를 갖고, 후방과 전방이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만, 교회가 정상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내의 어떠한 책임을 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푸대접하는 교회는 발전할 수 없으며, 퇴보의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경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만 뜻 앞에 세계가 빨리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을 높여서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선두에 선 사람들과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치되는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조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동적인 책임을 완결해야 할 운명이 우리들에게 있으며, 그 운명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선생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결 방법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목사님들에게 원리책을 몇권이나 나누어 주었습니까?

선생님이 일본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날의 속담 중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결불은 안 찢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없지만, 금년 가을에는 틀림없이 일본 식구들을 한국에 초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청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열 다섯명이 일본에 다녀왔으니, 그 절반 내지 3분의 1인 다섯명 정도라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18-312

어려운 자리에서 승리한 실적을 쌓으라

선생님이 일본에 있을 때에, 한국 본부에 대한 선전을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마루방에서 잠을 자야 되고, 맨발로 무

를 꿇고 기도해야 되고, 비좁아서 몸을 비벼대며 옷이 벗겨질 정도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식구들 웃음)

이번에 같이 간 유광렬씨가 북해도에 갔다 돌아올 때에 통곡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눈에는 눈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그들과 헤어져 돌아가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하니 자기도 모르게 두 줄기 눈물이 거침없이 흘러서 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시급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외국 식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니, 그 외국 식구들을 대할 때 자신이 참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식구들이 일본에 가서 전부 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과거에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면서 자기가 활동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가거나 식구들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고생했다는 간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증한 그 내용들을 들어볼 때, 그다지 훌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본부에서 갔다는 식구로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나 하면, 선생님과 관계를 맺어 고생을 했다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한국 식구의 재산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딴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중심하고 볼 때에는 재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지고는 그와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고생하며 투쟁해 나왔느냐 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 자신은 그 무엇을 가지고 외부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달리 어려운 자리에서 고되고 힘든 일을 참고 견디어 이긴 승리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적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화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어려운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